

철도면허제도의 고찰과 다종차량 도입에 따른 철도차량면허 개선방안 연구

최기열*, 김형준[†]

초 록 철도 안전과 기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철도차량 면허제도가 2006년에 시행되었으며, 2021년부터 시험방식이 PBT(Paper Based Test)에서 CBT(Computer Based Test)로 변경되었다. 또한, 철도면허 교육기관을 수료하지 않고, 필기시험을 응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. 본 연구는 철도기관사 양성과정 중 철도면허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,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. 기관사 면허 중 일반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제2종 면허를 대상으로 철도면허제도의 변천사 및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비교하였고, 다종차량에 대한 면허분류 및 적용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. 보다 나은 철도차량 면허제도의 확립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.

[†] 교신저자: 경일대학교 철도학부(dr.hjkim@kiu.kr)

* 경일대학교 철도학과